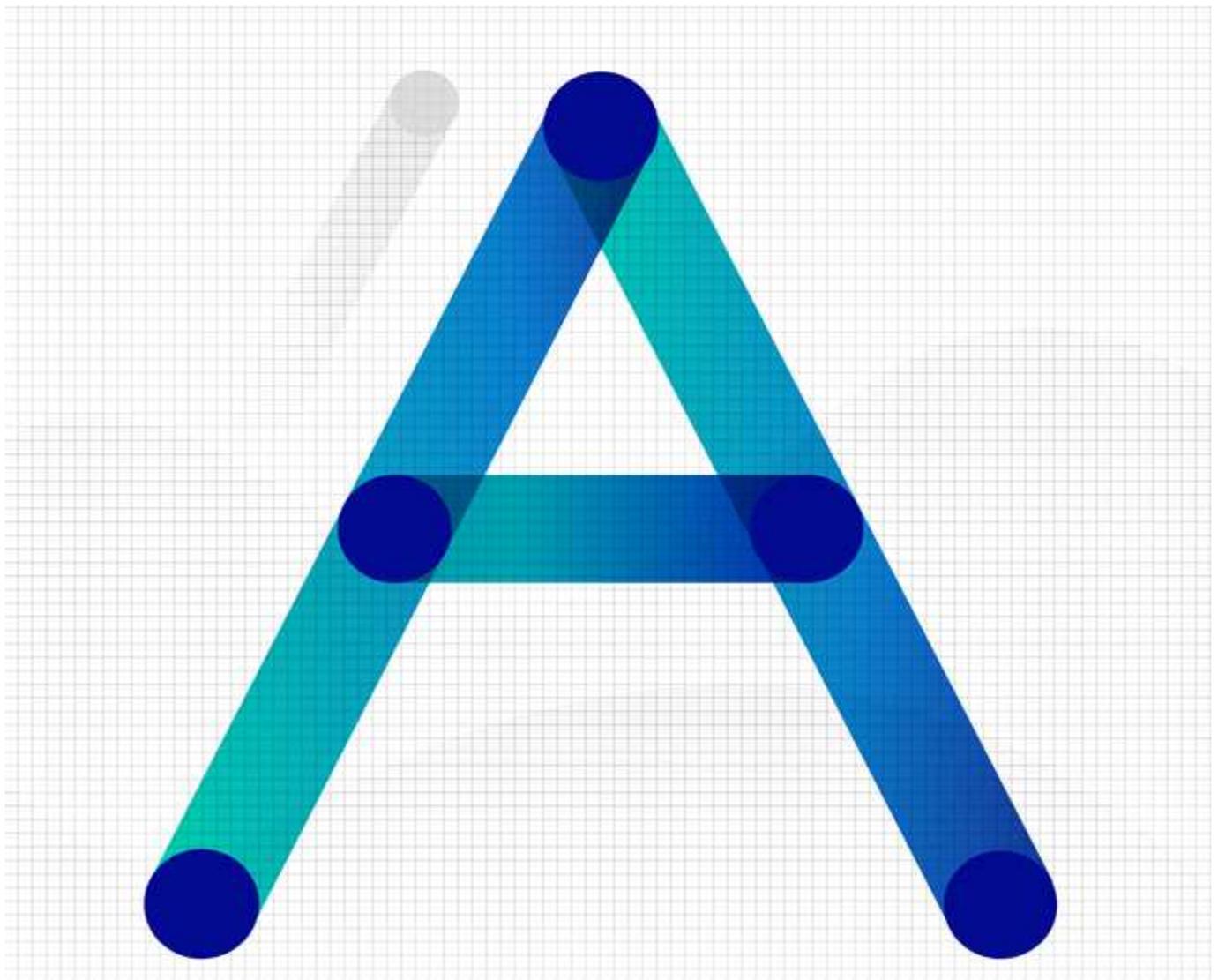


# 2019년 하반기 해외건설산업 동향

- I. 해외건설 수주동향
- II.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동향
- III. 해외건설 기업동향
- IV. 시사점 및 결론

작성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 <요 약>

**2019년 11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80억달러로 전년대비 31% 감소, 올해 수주액은 230~250억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11월까지 중동수주액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44억달러, 아시아 수주액은 28% 감소한 106억달러를 기록
- 과거 해외건설 최대 수주지역이었던 중동 수주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건설 수주 정상화를 위해선 중동지역 수주 회복이 급선무
- 공종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토목 35억달러, 건축 36억달러, 플랜트 94억달러, 전년대비 각각 51%, 33%, 51% 감소
- 2016년 플랜트 132억달러보다 적게 수주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플랜트 수주는 10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

**2020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주액은 280~300억 달러 전망**

- 유가 안정 및 글로벌 인프라 수요 확대 등 글로벌 발주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건설시장 활성화에 따른 기업들의 수주 체력 회복으로 2020년 해외건설수주는 개선될 전망
- 하지만 수주경쟁 치열로 인해 300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존의 통신 및 에너지공급체계의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 등 교통인프라도 IT기술과 접목을 통한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등 인프라시장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중**

- 2018년 기준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1.49조달러로 추정되며, 교통인프라 8,040억달러,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6,770억달러로 구성
- 2022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28.8% 증가한 1.94조달러를 기록할 전망

**플랜트 EPC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프라 시장 공략 및 PPP 사업 모델 확대 등 공종과 사업모델의 확장이 필요**

-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시장의 진입을 위해선 2018년 기준 12억달러에 불과한 투자개발형 사업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지원은 필수적



## I. 해외건설 수주 동향

**2019년 11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80억달러로 전년대비 31% 감소, 올해 수주액은 230~250억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11월까지 중동수주액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44억달러, 아시아 수주액은 28% 감소한 106억 달러를 기록
- 과거 해외건설 최대 수주지역이었던 중동 수주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건설 수주 정상화를 위해선 중동지역 수주 회복이 급선무
- 공종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토목 36억달러, 건축 37억달러, 플랜트 91억달러, 전년대비 각각 38%, 29%, 36% 감소
- 2016년 플랜트 132억달러보다 적게 수주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플랜트 수주는 10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
- 중동 플랜트 수주부진으로 인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28% 정도 감소될 전망

2019년 지역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중동	369	261	313	165	107	145	92	44
아시아	194	275	159	197	127	125	162	106
유럽	5	7	68	10	6	1	37	19
중남미	62	33	68	45	16	4	7	1
아프리카	16	11	22	8	12	7	12	4
북미	3	65	30	36	14	6	10	6
합계	649	652	660	462	282	290	321	180

자료: 해외건설협회



### 2019년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토목	88	181	57	85	64	51	72	36
건축	143	54	49	71	53	24	54	37
플랜트	395	396	517	265	132	199	184	91
전기	13	8	14	9	15	7	4	5
통신	1	2	2	2	0	0	0	1
용역	8	10	21	30	17	8	8	10
계	649	652	660	462	282	290	321	180

자료: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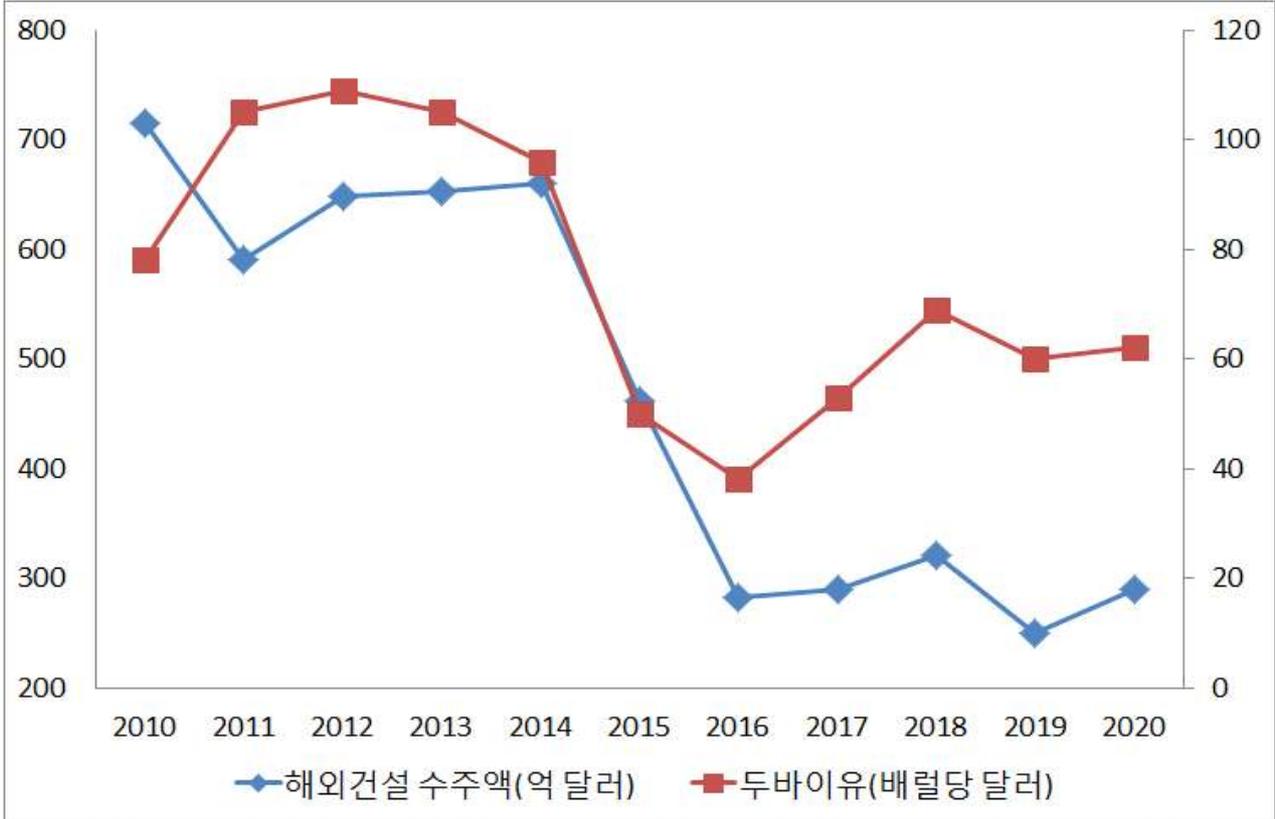
### 2020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주액은 280~300억달러 전망

- 2019년 그동안 해외건설 수주의 발목을 잡아왔던 해외 현안공사의 상당 부분이 마무리되고, 여기에 2015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 호황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수익성 개선돼 수주 체력이 회복
- 2017년까지 해외 적자 수주의 후유증으로 국내 주요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익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부실정리 및 현안공사 완공으로 인해 2018년부터는 수익성이 플러스로 반전
- 2014년까지 100조원 내외를 기록했던 국내 건설시장은 2015년 이후 민간건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45~165조원 시장규모로 증가
- 2020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이 호황세를 끝내고 조정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를 위해 해외건설 수주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20년부터 국내 건설사는 회복된 수주체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건설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해외건설 수주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글로벌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00억달러 이상 수주는 쉽지 않을 전망
- 해외건설수주의 절반을 차지했던 중동 플랜트 수주가 유럽 및 중국 EPC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수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달러, 배럴당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 국내 건설시장 수주 현황 및 전망

단위 :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민간수주	74.1	67.4	55.1	66.7	113.3	117.5	113.1	112.2	103.9	91.1
공공수주	36.6	34.1	36.2	40.7	44.7	47.4	47.3	42.3	45.0	48.9
총합	110.7	101.5	91.3	107.4	158.0	164.9	160.4	154.5	148.9	140.0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II.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동향

### 1.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동향

#### 2017년 기준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은 전년대비 3% 증가한 4,824억달러 기록해 반등세 지속

-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은 2013년 5,440억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2016년 4,681억달러를 바닥으로 반등
-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가하락에 따른 오일&가스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2014년 이후 하향세를 기록
- 2017년 아시아,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해외건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4,824억달러를 기록
- 해외건설시장의 반등은 주요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교통 등 인프라 및 건축 투자 증가 때문

#### 2018년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은 5,000억달러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5,000억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글로벌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 증가한 4,968억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 역시 아시아 및 인프라시장을 중심으로 3%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해 5,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아시아 인프라 투자가 전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지역 경기호황에 따른 오일 & 가스 및 건축 관련 투자가 양호한 상황
- 2019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18년 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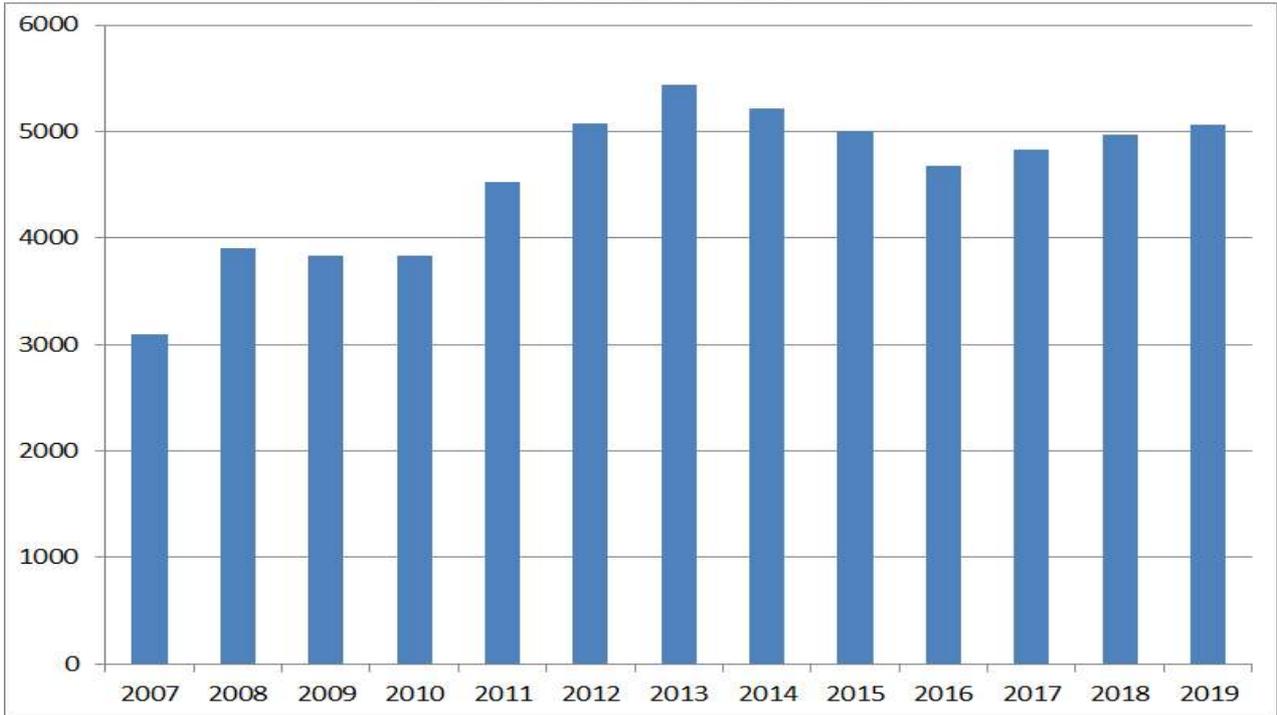
#### 2020년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은 유가 안정 및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은 석유·가스 E&P 투자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석유·가스 E&P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해외건설시장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낼 전망
- 유가 급락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어 왔으나, 유가가 안정세에 진입함에 따라 관련 투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중 무역분쟁 해결 가능성 등 세계 경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도국의 건설수요도 양호할 전망



### 글로벌 해외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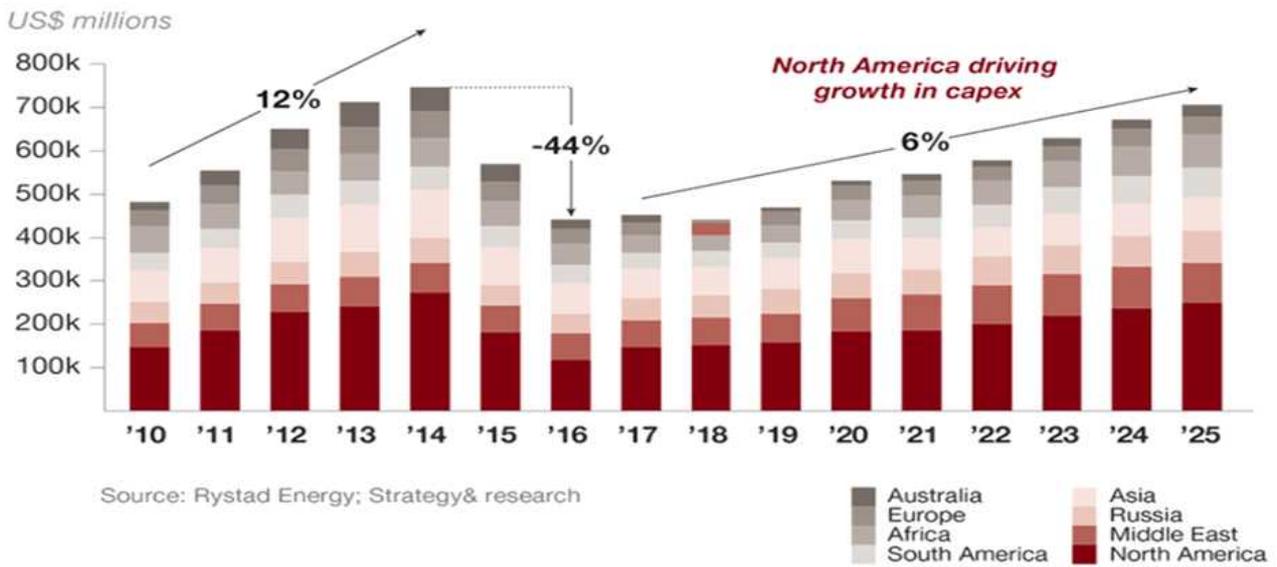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자료: ENR

### 세계 석유가스 E&P 투자 지역별 비중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자료: Rystad Energy



## 2. 글로벌 인프라 시장동향

### 인프라시장은 IT기술과 접목을 통한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00년간 사용해왔던 낡은 인프라 시설의 대규모 교체 필요성 증가, 특히 석탄으로 대변되는 낡고 非환경적인 에너지공급 체계의 변화가 시작
- 선진국은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개도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수요가 증가

### 2018년 기준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1.49조달러로 추정되며, 교통인프라 8,040억달러,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인프라 6,770억달러

- 글로벌 인프라시장은 2011년 1.23조달러에서, 2018년 1.49조달러로 연 평균 3%씩 성장, 올해 1.53조억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기준 지역별 인프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시아 7,590억달러, 유럽 3,580억달러, 북미 2,060억달러, 남미 770억달러, 중동 610억달러 규모로 아시아시장이 절반을 차지
- 2018년 공종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분야 8,040억달러,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인프라 6,770억달러를 기록
  - 교통분야 지역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시아 4,110억달러, 유럽 2,050억달러, 북미 1,030억달러, 남미 490억달러, 중동 240억달러 순
  - 에너지분야 지역별 시장규모는 아시아 3,480억달러, 유럽 1,490억달러, 북미 1,030억달러, 남미 280억달러, 중동 370억달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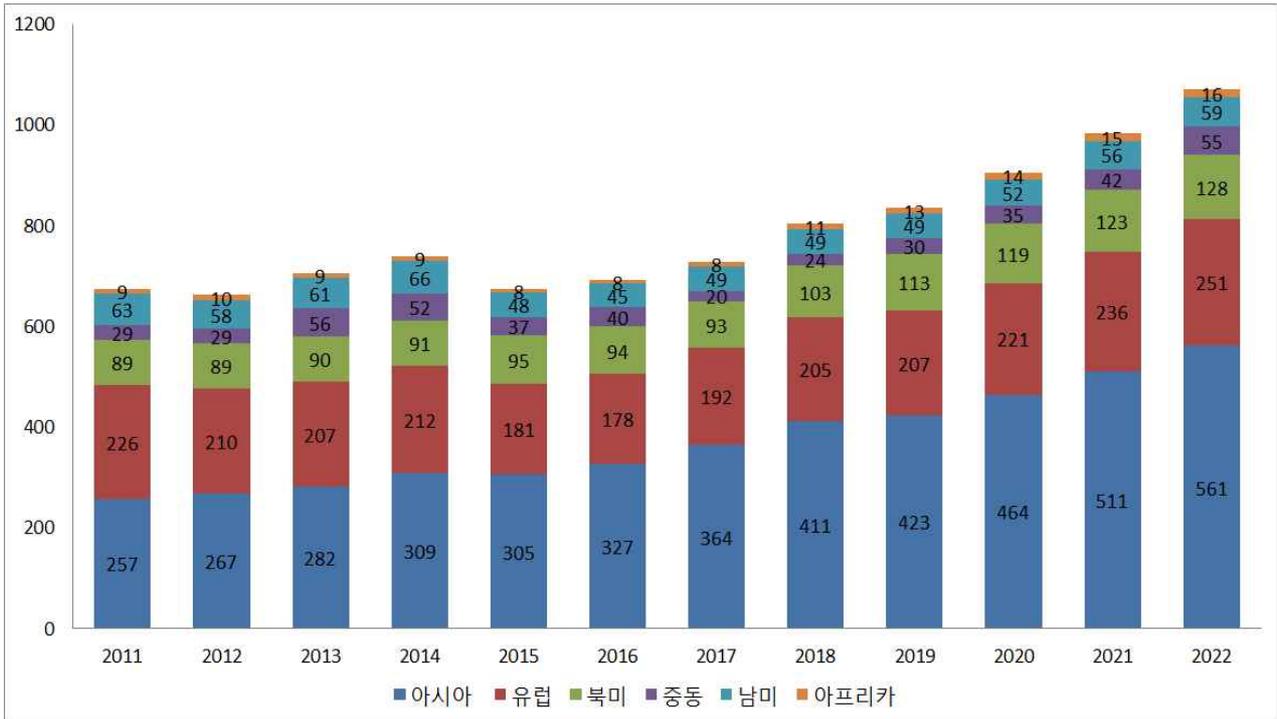
### 2022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28.8% 증가한 1.94조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글로벌 인프라시장 성장률은 연3%에 불과했으나, 2019년 이후 글로벌 인프라시장은 연 7%대 고장세를 기록할 전망
  - 북미 및 유럽의 노후된 인프라 교체 수요와 아시아지역 인프라 신규 수요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인프라시장은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
- 글로벌 인프라시장의 성장은 2022년 시장규모 1조달러에 달하는 아시아시장이 견인할 전망
  - 2022년 지역별 인프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시아 1.0조달러, 유럽 4,410억달러, 북미 2,530억달러, 남미 950억달러, 중동 1,020억달러
- 2022년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분야 1.07조달러, 에너지 분야 8,600억달러로 2018년 대비 각각 30%, 27%씩 증가



### 글로벌 교통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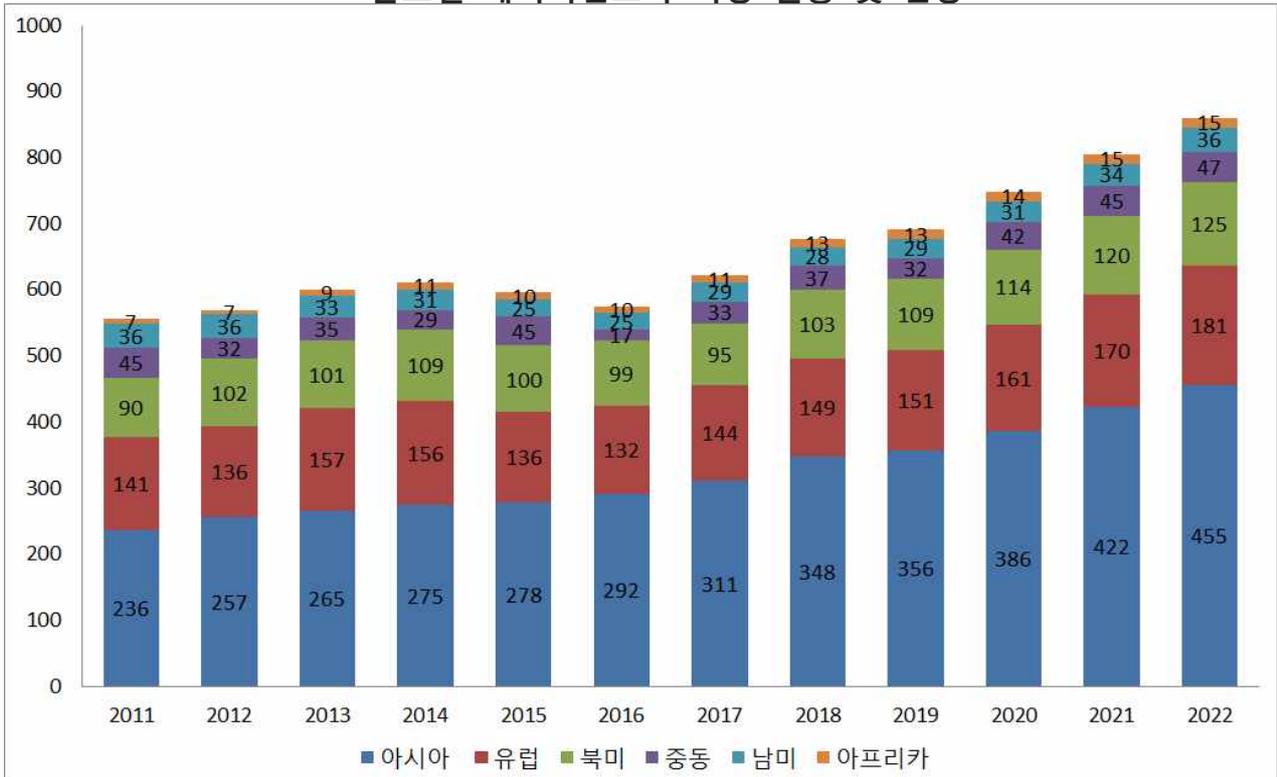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자료: BMI

### 글로벌 에너지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달러



자료: BMI



## 아시아 인프라시장의 2018년 기준 세부 분야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도로 2,790억달러, 발전 1,920억달러, 수처리 1,250억달러 순

- 2018년 기준 아시아 교통 인프라에서 도로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 790억달러, 공항 250억달러, 항만 180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
- 2018년 기준 아시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발전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처리 1,250억달러,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260억달러 순
- 2022년 도로분야 시장규모는 3,910억달러에 달해 분야별 인프라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 및 수처리 분야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2년 도로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2,530억달러), 수처리(1,640억달러)도 30% 이상 성장할 전망
-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아시아 인프라시장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이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 아시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교통인프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도로	140	158	167	188	189	208	244	279	289	319	354	391
철도	73	63	68	73	70	70	71	79	81	87	95	104
항만	22	21	21	21	17	18	17	18	18	19	21	22
공항	15	17	17	19	20	22	23	25	26	28	30	32
에너지인프라												
수처리	71	77	83	89	87	100	110	125	128	139	152	164
발전	139	149	150	156	161	164	172	192	197	214	234	253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23	26	28	26	26	24	24	26	26	28	3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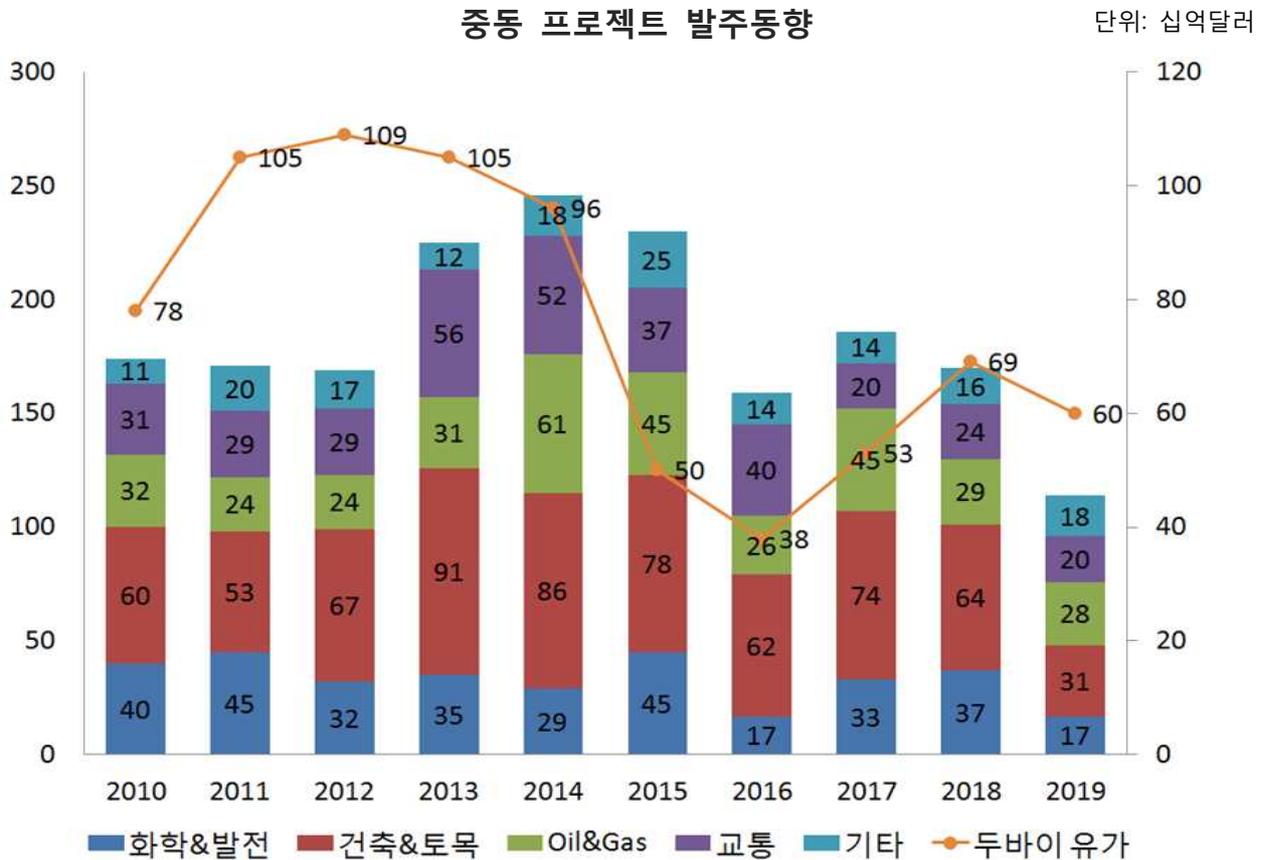
자료: ENR



### 3. 중동 발주동향

2018년 중동 프로젝트 발주량은 1,700억달러로 2014년 발주량 2,460억달러 대비 31% 감소, 유가 상황이 안정되면서 연기되어 왔던 주요 프로젝트가 2020년부터 발주될 것으로 예상

- 유가가 프로젝트 발주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2~18개월로 추정, 2017년 이후 유가가 안정화됨에 따라 중동발주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중동 발주액은 신도시 건설 등 건축&토목과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발주가 증가해 2,000억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발전 & 석유화학 등 플랜트 발주는 2019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주액 규모는 200~400억달러 전망



자료: ENR



### Ⅲ. 해외건설 기업동향

**2019년 11월까지 주요 9개 건설사의 해외수주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129.6억달러 기록해, 10년내 최저치를 기록**

- 상위 대형사의 수주 부진으로 인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
- 중동 플랜트 수주가 예상보다 저조해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작년대비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
- 2010년 이후 대규모 수주의 후유증으로 2013년부터 현안사업장이 발생하면서 해외건설 부분의 사업성이 악화
- 2017년까지 해외건설 부분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8년 1분기 이후 해외건설부분의 수익성이 턱어라운드 한 상황
- 예정원가의 100%가 넘어가는 해외 프로젝트 비중이 2016년 3월 11.5%에 달했으나, 2018년 9월 4%선까지 낮아짐
- 현안프로젝트가 정리되면서 해외건설 기업들의 수익성도 플러스로 반전
- 2016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

국내 주요 건설사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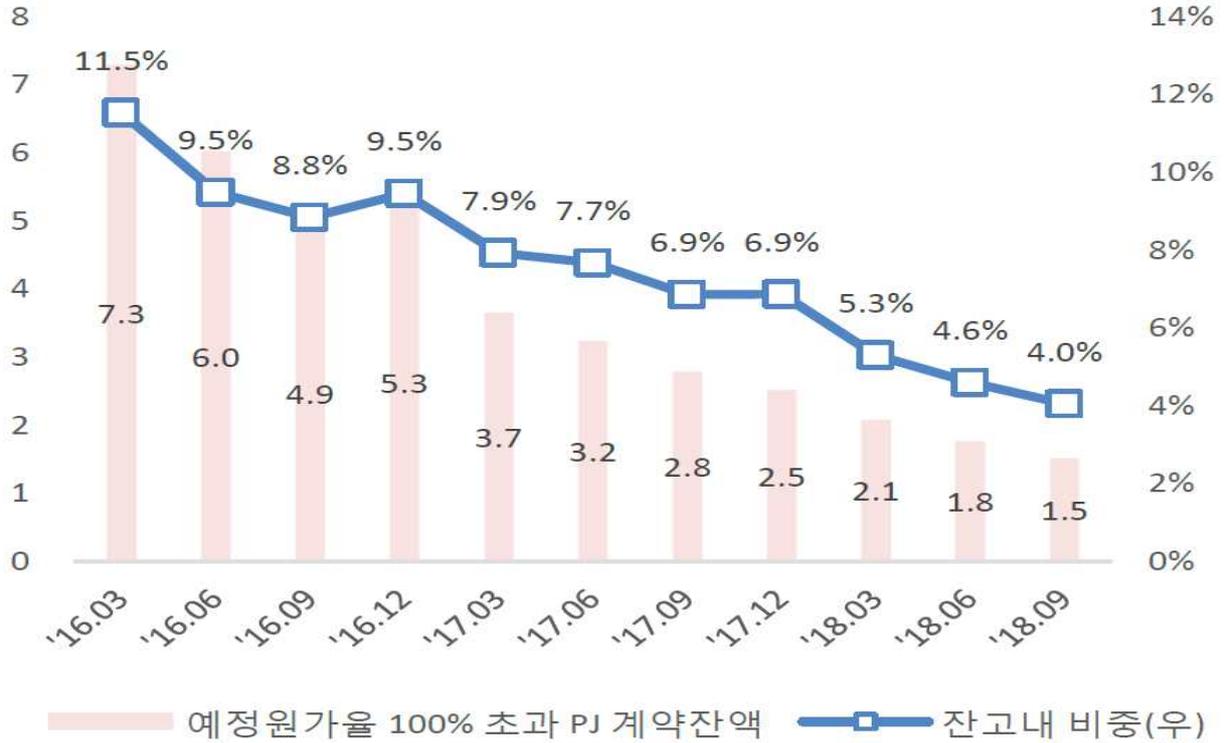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1월
삼성ENG	70.7	105	31.7	42.4	5.8	13.5	36.5	69.4	4.4
현대ENG	41.1	35.9	52.7	96.5	57.7	23.6	48.6	49.6	36.8
삼성물산	46	38	136.3	67.9	56.5	51.1	15.3	34.9	22.5
SK건설	36.9	25.6	47.8	66.6	43.2	2.1	21.1	29.2	-
대우건설	50.6	38.2	50	35.5	25.8	7.9	22.7	20.6	7.6
대림산업	59.2	23.1	39.5	20.9	23.1	6	26.6	13.7	1.7
현대건설	47	105	109	110.6	34	29.7	21.9	13.1	32.3
포스코	69	46.8	22.4	29	21.5	19.7	13.9	12.2	3.7
GS건설	41.6	44.8	52.9	59.5	55.4	20.9	14.7	9.3	20.6
총합	462.1	462.4	542.3	528.9	323	174.5	221.3	252	129.6

자료: 해외건설협회



### 주요 건설기업의 예정원가 대비 100% 초과 현장 계약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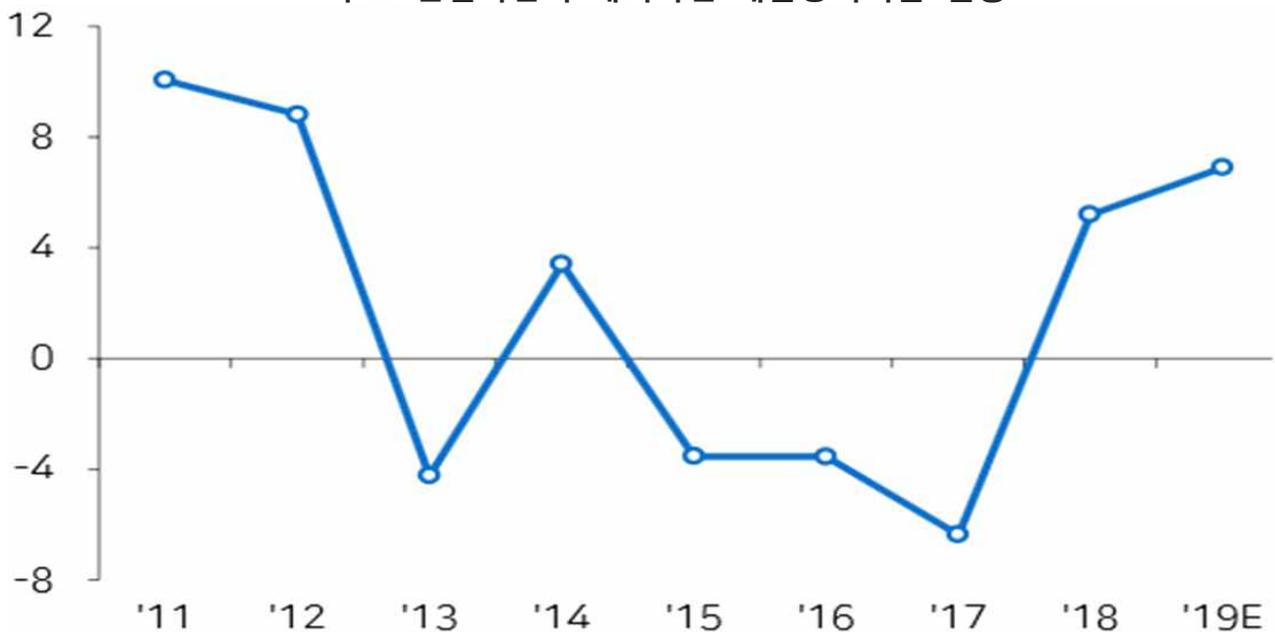
단위 : 조원



자료: 한신평, 8개 대형 건설사(연결기준 : 대림, 삼성ENG, GS, 한화 현대, 현대ENG, 대우, SK)

### 주요 건설기업의 해외사업 매출총이익률 현황

단위 : %



자료: 메리츠증권



## V. 시사점

**2020년 해외건설 수주환경은 중동 및 아시아 인프라 발주증가 등의 기회요인이 존재하나, 수주경쟁 격화에 따른 고위험 저수익 상황 지속으로 여전히 대외환경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2019년까지는 해외건설 부문의 부진을 국내 주택부문의 수익성으로 흡수할 수 있었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2020년 이후가 문제
- 2019년 극심한 수주부진으로 인해 해외건설부문의 외형감소 및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외건설 수주확대가 필요
- 유가 안정 및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수요 증가 등 2020년 글로벌 발주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등 경쟁국의 공격적인 수주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주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
- 2020년 해외건설 수주는 2019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더 우세한 상황으로 인해 300억달러 이상의 해외수주 달성은 어려울 전망

**플랜트 EPC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프라 시장 공략 및 PPP 사업 모델 확대 등 공종과 사업모델의 확장이 필요**

- 주력 분야인 플랜트 EPC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내재화 및 글로벌 소싱 확대가 필요
- PMC<sup>1)</sup>, FEED<sup>2)</sup>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고부가가치인 영역으로 밸류체인 확장 및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 주력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인프라사업 확대를 위해선 시공 중심의 사업 모델은 한계가 있어 결국 자본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 모델이 필요
- 인프라 사업은 플랜트 사업 대비 기술진입 장벽이 낮으며, 사업성공의 핵심요인은 기술보다는 자본조달 및 운영방식이 중요한 요소
-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시장의 진입을 위해선 2018년 기준 12억달러에 불과한 투자개발형 사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지원은 필수적

1)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 프로젝트 관리 운영

2) FEED(Front End Engineering and Design) : 프로젝트 확정 전 프로젝트기간, 비용, 기술사와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단계



금융조달별 해외건설 수주추이

단위 : 억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주처 예산	538	372	237	175	253
시공사 금융	69	36	11	61	7.3
투자개발형	22	14	1	15	12
ODA	6	14	12	29	13
기타	25	26	21	10	35.7
총합	660	461	282	290	321

자료: 해외건설협회